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

- 한국부패학회보를 중심으로 -

Trends and Contents of Corruption Research

- Focusing on the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

이 승 철(Lee, Seung Chal)*

ABSTRACT

In this study, 110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Corruption Society from 2007 to 2018, which were recognized as registered academic journal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on corruption in KCI more than three times.

In the background of researchers, first, there were more researcher men than women in gender. Second, there were the largest number of professors in researchers' positions. Third, there are the largest number of resear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region. Fourth, in the type of research, solo research was higher than joint research. Fifth, pure research was found to be higher in research funding than research funding research. Sixth, in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per person, one person in the 9th and 7th times, three (10.6%) in the 5th times, seven (14.9%) in the 3rd time, eight (11.3%) in the 2nd time, and 69 (48.9%) in the 1 time. Seventh, in terms of affiliation, it was followed by guitar, administration, law, and police administration. Eighth, descriptive research was shown to be higher than empirical research in research methods. In the tenth, administrative and law majors were found to be interested in the study of corrup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per, 52 corruption (47.3%), 25 others (22.7%), 7 audits (6.4%), 6 integrity (5.5%), 5 public information, reporting, and internal accusations (4.5%), 5 ombudsman (4.5%), 4 ethics (4.7%) and 3 bribery (2.7%) were the most corrupt topics. Second,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times taken, the highest number of times taken was 21, 16, 15, 14, 10, and 9 times, with 1 (0.9%), 2 times 13 times (1.8%), 3 times 11 times (2.7%), 5 times 8 times (7.3%), 4 times 6 times (3.6%), 10 times 5 times 9.1%), 26 times 4 times 4 times 4 times (42.6%), and 4 times 3 times (42.0%). On average,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pproximately 5.1.

Key words: Corruption,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Research trends, KCI, Content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I. 서론

부패와 관련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원적으로 부패(腐敗, Corruption)는 썩을 부(腐) 무너질 패(敗) 썩어서 무너지는 의미와 라틴어 ‘Cor(함께)’+‘Rupt(파멸하다)’로 함께 파멸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국가청렴위원회, 2006: 1). 법률적으로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에서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 외 위 사항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는 매우 상이한 상황에서의 인간행위나 활동에 관해 설명이기 때문에 개념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소와 시대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김진영, 2017: 83).

이러한 부패는 국가 및 사회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¹⁾ 첫째, 국제사회에서 부패 국가로 낙인찍혀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이 저하를 가져온다. 둘째, 정부정책의 수용성 저하, 행정서비스의 부실 및 행정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정부불신을 초래한다. 셋째, 국가·사회 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 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부정부패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부패와 관련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 되었지만 전문적인 연구는 1997년에 한국부패학회보가 발간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패학 연구의 전문학술지인 한국부패학회보의 논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태천(2007: 783)은 “학술지는 학자들의 학문에 관한 교환하는 하나의 장이며, 연구물의 집적의 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철(2013: 248)은 학술지 게재논문은 관련분야의 학문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자들의 특정학문에 대한 시각이나 시대사적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문적 경향성 분석은 그 학문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인접학문과의 경계성을 확보하고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주요한 학문적 논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최영출·김광구, 2011: 2).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부패학회보를 대상으로 등재학술지로 인정받은 2007년부터 - 2018년까지 KCI에서 3회 이상 인용횟수를 보이는 논문 11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1) 2017년 세계은행(Worldbank)는 매년 세계적으로 GOP의 2%에 해당하는 1조 5,000억 달러가 부패로 인하여 낭비된다고 하고 있다(김진영, 2017: 82).

내용을 살펴보고자 내용분석을 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기준

1. 학술지

『한국부패학회』는 반부패정책 및 반부패법률 등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립된 학회로서 전문학술지인 『한국부패학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학의 연구경향과 내용을 파악하는데 가장 유효한 분석대상이다.

학술지는 연구자들 간의 학술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공론의장으로서 연구자들이 승진, 임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패학 연구논문 분석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지는 연구에 있어서 인용자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단일자료로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부패학회보(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는 KCI의 연구분야 중 대분류에서 사회과학이며 중분류에서 행정학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연 4회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1997년에 창간하여 2001년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7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현재는 등재학술지를 유지하고 있다.²⁾ 논문 수는 연간 평균 30건 이며 총 562건의 논문이 게재되었다(<https://www.kci.go.kr> 2021.2.25. 검색). 분석대상은 등재지 선정인 2007년-2018년까지 12년이며 KCI에 등재된 『한국부패학회보』 게재 논문 중 3회 이상 인용횟수가 있는 110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³⁾ KCI에서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일정 이상의 인용횟수를 있는 논문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년간의 부패 관련 연구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며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2. 선행연구

학술논문의 경향분석은 해당분야의 학술활동에 대한 방향의 확인이며, 연구의 질적강화를

2) 2019년 기준년도 KCI IF(2년) 0.41, 중심성지수(3년) 0.676, 즉시성지수 0.06이다.

2017.12. 일시적 등재후보지로 하락(<http://www.kci.go.kr/> 2021.02.21.검색)

3) 대체로 KCI에서 일정한 인용횟수를 보인 논문은 다른 학술지논문 보다 높은 선호도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그만큼 연구의 중요성 및 영향력을 일정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높은 질적(quality)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한 기초분석이자 정보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박홍식, 2006: 593). 학문의 경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오래 동안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학술지 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일학술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주상현(2002)은 1995-2001년 시기의 한국행정학보를 대상으로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비지원, 통계기법으로 분류하고 455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이상원·이승철(2007)은 한국공안행학회보를 대상으로 창간호부터 2007년까지 게재된 논문 334편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주제, 연구자, 연구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승철(2014)은 2007-2014년 시기의 한국지방재정논집에 게재된 논문 107편을 연구자들의 배경, 참고자료, 핵심주제어를 중심으로 학술지를 분석하고 연구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수의 학술지를 가지고 특정한 연구분야의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최상한(2010)은 2000-2009년 기간 동안 SSCI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자배경(최종학위, 학위출신국가, 소속, 지위, 편당저자 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수, 공저자와의 관계),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지 선정과 피인용수로 분류하고 7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승철(2013)은 KCI에 등재된 일정한 인용횟수를 가진 지방행정분야 논문 158편(13개 학술지)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단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모든 논문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객관성이 확보된 KCI에 일정이상의 인용횟수를 나타내는⁴⁾ 한국부패학회보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부패학의 연구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부패학회보의 정체성 확보와 부패학 연구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부패 관련 연구를 더욱 체계화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기준

학술논문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와 연구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핵심요인들이며 그들이 연구수행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학문적 현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 중심의 분류기준은 성별, 직위, 지역, 논문편당 저자 수, 연구비 지원여부, 연구방법론 등이 있다(권정득, 1996; 한태천, 2000; 목진휴·박순애, 2002; 이병렬·박기관, 2002; 주상현, 2009; 우양호·홍미영, 2004; 안혜원·류상일, 2007; 최상한, 2010, Houston & Delenva, 1990; Lan & Anders,

4)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은 2007년부터 각종 학술지 정보제공 이외에도 연구자원에 필요한 통계자료와 연구자의 연구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승철, 2020: 217).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 특성으로는 성별, 직위, 지역, 연구유형, 연구비지원⁵⁾, 연구방법, 1인당 게재 횟수, 소속, 전공 등을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논문에서는 논문의 핵심주제어의 분석으로 학문의 특성을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최호택외 2011: 13). 따라서 논문의 제목에 나타난 핵심 주제와 인용횟수⁶⁾를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표 1〉 분석기준

분석기준	분석요소	측정내용
	연구대상 및 기간	등재지 선정 후(2007-2018년) KCI에 등재된 인용상위 3회 이상 한국부패학회보 논문 110편
연구자 배경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직위	① 교수 ② 강사/겸임교수 ③ 박사 ④ 연구원 ⑤ 기타(공무원)
	지역	① 수도권 ② 충청·강원 ③ 영남 ④ 호남(제주포함)
	연구유형	① 단독연구 ② 공동연구
	연구비지원	① 순수연구 ② 연구비 지원연구
	연구방법	① 서술적연구 ② 경험적연구
	1인당 게재 횟수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⑦ 7회 ⑧ 8회 ⑨ 9회
	소속	① 행정 ② 경찰행정 ③ 법학 ④ 기타
	전공	① 행정 ② 법학 ③ 정책 ④ 경제 ⑤ 기타
연구논문 배경	연구주제	① 부패 ② 감사 ③ 청렴 ④ 윤리 ⑤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⑥ 옴부즈만 ⑦ 뇌물 ⑧ 부정청탁 ⑨ 기타
	피인용횟수	

Ⅲ. 분석결과

1. 전체

한국부패학회보가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KCI에서 제공하는 인용지수 상위 110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논문 수는 2013·2014(16편<14.5%>), 2012(13편<11.8%>),

5) 연구방법은 연구분야에 따라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서술적접근방법과 통계적접근방법 또는 규범적, 경험적(실증적) 및 처방적 연구로 분류되기도 한다(운영진, 2013: 13).

6) 인용은 해당 선행연구가 논문작성에 주요하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며, 과학적 문헌, 특히, 학술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조은성 외, 2007: 2).

2007·2008(11편<10.0%>), 2010(10편<9.1%>), 2015(9편<8.2%>), 2009(8편<10.0%>), 2011(5편<4.5%>), 2015·2016(4편<3.6%>), 2018(3편<2.1%>) 순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도가 가장 많은 논문이 인용되었다.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점차 논문이 증가하여 2013·2014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용횟수에서는 2007년(93회<16.7%>), 2013년(82회<14.7%>), 2014년(73회<13.1%>), 2008년(65회<11.7%>), 2012년(53회<9.5%>), 2015년(44회<7.9%>), 2009년(42회<7.6%>), 2010년(40회<7.2%>), 2011년(21회<3.8%>), 2016년(19회<3.4%>), 2017년(13회<2.3%>), 2018년(11회<2.1%>)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도별 논문 수 및 인용횟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논문수	11 (10.0)	11 (10.0)	8 (7.3)	10 (9.1)	5 (4.5)	13 (11.8)	16 (14.5)
인용횟수	93 (16.7)	65 (11.7)	42 (7.6)	40 (7.2)	21 (3.8)	53 (9.5)	82 (14.7)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논문수	16 (14.5)	9 (8.2)	4 (3.6)	4 (3.6)	3 (2.9)	110편 (100.0)	
인용횟수	73 (13.1)	44 (7.9)	19 (3.4)	13 (2.3)	11 (2.1)	556회 (100.0)	

2. 연구자 배경

부패학 연구자들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 직위, 지역, 연구유형, 연구비지원, 1인당 게재 횟수, 소속, 전공, 연구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1) 성별

연구자들의 성별에서 연구자 전체는 141명이었으며⁷⁾ 남성 126명(89.4%), 여성 15명(10.6%)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중분류에 속해 있는 지방행정 분야 연구(이승철, 2014: 344)에서 남성 87.3%, 여성 5.1%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패학 연구자들의 여성 연구자 비중이 지방행정 분야 연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여성 연구자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중복 허용

〈표 3〉 성별

남성	여성	전체
126명 (89.4%)	15명(10.6%)	141명(100.0%)

2) 직위

연구자들의 직위에 있어서는 교수 85명(60.3%), 연구원 28명(19.9%), 기타 13명(9.2%), 강사/겸임 9명(6.4%), 박사 6명(4.2%)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행정 분야 연구(이승철, 2014: 344)에서 교수 60.9%, 연구원 21.8%, 박사과정/수료 10.5%, 기타 4.4%, 강사/겸임 2.4%의 결과와도 다소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⁸⁾ 이러한 결과 중 연구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첫째, 높은 연구실적을 통하여 학교로 전직하는 경향성이 반영되었을 경우, 둘째, 연구원이 부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중복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이다.

또한 지방행정 연구에서 박사과정/수료가 부패학 연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위논문을 지도교수님과 함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부패학으로 학위논문을 쓰는 연구자가 소수이라는 해석과 학위논문으로 부패학 논문을 취득하였지만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하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이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부패학 전문학술지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부패학 관련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표 4〉 직위

교수	강사/겸임	박사	연구원	기타	전체
85명 (60.3%)	9명 (6.4%)	6명 (4.2%)	28명 (19.9%)	13명 (9.2%)	141명 (100.0%)

3) 지역

연구자들의 지역은 수도권 52편(47.3%), 영남권 31편(28.2%), 충청·강원권 23편(21.0%), 호남(제주)권 4편(3.5%) 순으로 나타나 부패학 연구자들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행정 분야 연구(이승철, 2014: 344)에서 수도권 38.6%, 영남권 37.3%, 충청·강원권 15.2%, 호남권 8.9%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영남권과 충

8) 우양호·홍미영(2014: 14), 이병렬·박기관(2002: 32)과 유사하다.

청·강원권이 대등한 분포를 보임으로서 부패학 연구자들이 지방행정 분야 연구자들보다 지역적으로 집권적이기보다 분권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대학, 연구원, 정부기관 등이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지역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⁹⁾

〈표 5〉 지역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제주포함)권	전체
52편 (47.3%)	23편 (21.0%)	31편 (28.2%)	4편 (3.5%)	110편 (100.0%)

4) 연구유형

연구자들의 연구유형에서는 단독연구 83편(75.5%), 공동연구 27편(24.5%)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연구에서는 2인 공동연구 24편(88.9%), 3인 공동연구 2편(7.4%), 4인 공동연구 1편(3.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연구에서는 대부분 2인 공동연구 형태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분야 연구(이승철, 2014: 344)에서는 단독연구 59.5%, 공동연구 40.5%와 비교하면 부패학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학 연구자들 중 법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주로 단독연구를 행정학이나 기타 학문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공동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연구유형

단독연구	공동연구		전체
83편 (75.5%)	27편 (24.5%)	2인(24편: 88.9%)	110편(100.0%)
		3인(2편: 7.4%)	
		4인(1편: 3.7%)	

5) 연구비지원

연구자들의 연구비지원에서는 순수연구 78편(70.9%), 연구비 지원연구 32편(29.1%)으로

9) 전국 대학 중 수도권 115개, 영남권 92개, 충청·강원권 72개, 호남권 58개의 분포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승철, 2014: 344).

순수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연구에서는 대학 연구비지원 25편(78.1%), 한국연구재단지원 6편(18.8%), 기업지원 1편(3.1%)로 나타나 대학연구비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행정 분야 연구(이승철, 2014: 346)에서는 순수연구 66.5%, 연구비 지원연구 33.5%와 비교하면 부패학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비 지원연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비지원

순수연구	연구비 지원연구		전체
78편 (70.9%)	32편 (29.1%)	대학(25편:78.1%)	110편(100.0%)
		한국연구재단 (6편: 18.8%)	
		기업(1편: 3.1%)	

6) 1인당 게재논문 횟수

연구자들의 1인당 게재논문 횟수에서는 9·7·4회 1명, 5회 3명(10.6%), 3회 7명(14.9%), 2회 8명(11.3%), 1회 69명(48.9%)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행정 분야 연구(이승철, 2014: 346)에서 5회 0.8%, 4회 3.3%, 3회 3.3%, 2회 12.4%, 1회 80.2%와 비교하면 부패 관련 연구자 1인당 게재논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부패학회보가 전문성을 가진 학술지로서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부패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부패학 전문학술지에 지속적으로 투고하여 1인당 게재논문 횟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경우는 다수의 행정학분야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지만 부패학은 연구주제가 한정되어 있어 전문학술지에 지속적으로 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학술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 1인당 게재논문 횟수

9회	7회	5회	4회	3회	2회	1회	전체
1명 (6.4%)	1명 (5.0%)	3명 (10.6%)	1명 (2.9%)	7명 (14.9%)	8명 (11.3%)	69명 (48.9%)	141명 (100.0%)

7) 연구자 소속

연구자들의 소속에 있어서는 기타 78명(55.3%), 행정학과 31명(22.0%), 법학 20명(14.2%), 경찰행정학과 12명(8.6%) 순으로 나타나 행정학과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구자 소속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법학과(부)	기타	전체
31명(22.0%)	12명(8.6%)	20명(14.2%)	78명(55.3%)	141명

※ 법학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포함

8) 연구방법

연구방법에서는 110편의 논문 중 서술적 연구 87편(79.1%), 경험적 연구 23편(20.9%)로 나타나 서술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행정분야 연구에서는 서술적 연구 24.1%, 경험적 연구 75.9%로 경험적 연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철, 2014: 349). 그러나 부패학 연구자들 중 경험적 연구에서 행정학 전공자가 16편임을 고려하면 행정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은 경험적 연구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연구방법

서술적 연구	경험적 연구	전체
87편(79.1%)	23편(20.9%)	110편(100.0%)

※ 경험적 연구에서는 경제, 경영, 사회, 지역학, 정책, 경찰 등의 전공자가 포함되었음.

9) 연구자 전공

부패학 연구자들의 전공에서는 행정 60명(42.6%), 법학 35명(24.8%), 기타 23명(16.3%), 경제 11명(7.8%), 정책 8명(5.7%), 경찰 4명(2.8%)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행정과 법학 전공자들이 전체의 67.4%를 점유하고 있어 이 분야 전공자들이 부패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회핵심 주제인 부패분야가 행정과 법학과의 관련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 연구자 전공

행정	법학	경제	정책	경찰	기타	전체
60명 (42.6%)	35명 (24.8%)	11명 (7.8%)	8명 (5.7%)	4명 (2.8%)	23명 (16.3%)	141명 (100.0%)

※ 13명은 전공을 파악할 수 없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3. 연구논문 배경

1) 연구주제 및 인용횟수

연구논문 배경으로 연구주제에서는 부패 52편(47.3%), 기타 25편(22.7%), 감사 7편(6.4%), 청렴 6편(5.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옴부즈만 5편(4.5%), 윤리 4편(3.7%), 부정청탁 3편(4.1%), 뇌물 3편(2.7%) 순으로 나타나 부패와 관련한 연구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부패학회보의 정체성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용횟수에서는 부패가 261회(46.9%)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횟수가 높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감사, 옴부즈만, 부정청탁의 주제는 연구논문 수의 비중보다 인용횟수가 더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연구주제 및 인용횟수

주제	편	인용횟수
부패	52편(47.3%)	261회(46.9%)
기타	25편(22.7%)	119회(21.4%)
감사	7편(6.4%)	39회(7.0%)
청렴	6편(5.5%)	28회(5.0%)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25회(4.5%)
옴부즈만	5편(4.5%)	26회(4.7%)
윤리	4편(3.7%)	25회(4.5%)
부정청탁	3편(2.7%)	23회(4.1%)
뇌물	3편(2.7%)	10회(2.7%)
전체	110편(100.0%)	556회(100.0%)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2018년 중 부패는 9년 동안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2016년의 경우 4편 중 3편(7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12>의 결과에서와 같이 부패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어 부패학 연구에서 부패가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청렴은 2008, 2009, 2012, 2014, 2015, 2017등 비교적 많은 연도에서 지속적인 인용횟수를 보이고 있어 부패학 연구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전체 7편 중 2014년도에 5편이 인용되어 특정연도에 집중하여 인용되었다.

2) 피인용 횟수

부패학 연구논문의 피인용 횟수에서는 21·16·15·14·10·9회가 각 1편(0.9%), 13회 2편(1.8%), 11회 3편(2.7%), 8회 5편(4.5%), 7회 8편(7.3%), 6회 4편(3.6%), 5회 10편(9.1%), 4회 26편(23.6%), 3회 46편(42.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약 5.1회의 피인용 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4회와 3회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 분야 연구(이승철, 2014: 352)에서는 43회 1편이 가장 높은 인용횟수이며 평균적으로 10.9회 피인용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부패학 연구논문들은 낮은 인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행정 분야 연구자가 부패학 연구자들보다 연구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3〉 피인용 횟수

피인용 횟수	편	전체 피인용수
21회	1편(0.9%)	21회(3.8%)
16회	1편(0.9%)	16회(2.9%)
15회	1편(0.9%)	15회(2.7%)
14회	1편(0.9%)	14회(2.5%)
13회	2편(1.8%)	26회(4.7%)
11회	3편(2.7%)	33회(5.9%)
10회	1편(0.9%)	10회(1.8%)
9회	1편(0.9%)	9회(1.6%)
8회	5편(4.5%)	40회(7.2%)
7회	8편(7.3%)	56회(10.1%)
6회	4편(3.6%)	24회(4.3%)
5회	10편(9.1%)	50회(9.0%)
4회	26편(23.6%)	104회(18.7%)
3회	46편(42.0%)	138회(24.8%)
전체	110편(100.0%)	556회(100.0%)

부패학 연구의 시대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대(2007-2010: 40편)와 2010년대(2011-2018: 70편)로 구분하여 주제 및 인용횟수를 살펴보았다. 주제는 2000년대는 부패 20편(50.0%), 기타 8편(28.0%), 윤리·옴부즈만 3편(7.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로

비·뇌물·감사 1편(2.5%)로 나타나 부패가 가장 높은 연구주제였다. 2010년대는 부패 32편(45.7%), 기타 18편(25.7%), 감사 6편(8.6%),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7.1%), 청렴 4편(5.7%), 뇌물·옴부즈만 2편(2.9%) 순으로 나타나 2000년대 보다는 부패와 기타의 비중이 낮아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횟수에 있어서는 2000년대는 240회(43.2%)로 연 평균 60회의 인용횟수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대는 316회(56.8%)로 연 평균 39.5회로 2000년대 보다 낮은 인용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도별 평균 인용횟수는 2007년(8.5회), 2008년(5.9회), 2009년(5.3회), 2013년(5.1회), 2015년(4.9회), 2016년(4.8회), 2014년(4.6회), 2011년(4.2회), 2010년(4.0회), 2018년(3.7회), 2017년(3.3회) 순으로 나타나 총 인용횟수와 평균 인용횟수의 빈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도별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인용횟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표 14〉 연도별 인용횟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인용횟수	93 (11편)	65 (11편)	42 (8편)	40 (10편)	21 (5편)	53 (13편)	82 (16편)
평균 인용횟수	8.5	5.9	5.3	4.0	4.2	4.1	5.1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총 인용횟수	73 (16편)	44 (9편)	19 (4편)	13 (4편)	11 (3편)	556회 (110편)	
평균 인용횟수	4.6	4.9	4.8	3.3	3.7	5.1	

IV. 결론 및 제언

부패에 대한 연구는 오래 동안 지속되었지만 현재의 부패학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패학 연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KCI에 3회 이상의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논문 11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고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0) 21회(기타), 16회(부패), 15회(감사), 14회(윤리), 13회(부패), 13회(부패), 11회(기타), 11회(옴부즈만), 11회(공익정보), 10회(부패), 9회(부패), 8회(청렴), 8회(부패), 8회(부패), 8회(부패), 8회(부패) 등으로 나타나 어떤 주제가 당해 연도에 있는가에 따라 인용횟수는 달라진다.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기준으로 연구자 배경과 연구논문 배경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자 배경에서는 첫째, 성별에서 연구자 전체는 141명이었으며, 남성 126명(89.4%), 여성 15명(10.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자의 직위에서는 교수 85명(60.3%), 연구원 28명(19.9%), 기타 13명(9.2%), 강사/겸임 9명(6.4%), 박사 6명(4.2%)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 52편(47.3%), 영남권 31편(28.2%), 충청·강원권 23편(21.0%), 호남(제주)권 4편(3.5%) 순으로 나타나 부패학 연구자들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유형에서는 단독연구 83편(75.5%), 공동연구 27편(24.5%)으로 나타났다.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비지원에서는 순수연구 78편(70.9%), 연구비지원연구 32편(29.1%)으로 순수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1인당 게재논문 횟수에서는 9·7·4회 1명, 5회 3명(10.6%), 3회 7명(14.9%), 2회 8명(11.3%), 1회 69명(48.9%)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속에 있어서는 기타 78명(55.3%), 행정학과 31명(22.0%), 법학 20명(14.2%), 경찰행정학과 12명(8.6%) 순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행정학과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방법에서 110편의 논문은 서술적 연구 87편(79.1%), 경험적 연구 23편(20.9%)로 나타나 서술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전공에서는 행정 60명(42.6%), 법학 35명(24.8%), 기타 23명(16.3%), 경제 11명(7.8%), 정책 8명(5.7%), 경찰 4명(2.8%) 순으로 나타나 행정과 법학 전공자들이 부패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배경에서는 첫째, 연구주제에서는 부패 52편(47.3%), 기타 25편(22.7%), 감사 7편(6.4%), 청렴 6편(5.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옴부즈만 5편(4.5%), 윤리 4편(3.7%), 부정청탁 3편(4.1%), 뇌물 3편(2.7%) 순으로 나타나 부패 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인용 횟수를 살펴보면, 21·16·15·14·10·9회가 각 1편(0.9%), 13회 2편(1.8%), 11회 3편(2.7%), 8회 5편(4.5%), 7회 8편(7.3%), 6회 4편(3.6%), 5회 10편(9.1%), 4회 26편(23.6%), 3회 46편(42.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약 5.1회의 피인용 횟수로 나타났다.

한국부패학회보 학술논문 내용분석을 통한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한 후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의 개념 및 연구범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부패의 개념과 부패의 연구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정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패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경험적 연구(양적연구 및 질적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부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동반되어 균형적으로 수행될 때 학문적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협업연구 또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확보이다. 부패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전공이 행정 또는 법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학, 복지, 심리,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으로 부패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패는 인류의 존재 이래로 나타난 사회적 현상으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사이버 부패)로 진화되고 변형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참여와 협업연구는 부패학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부패학회보 학술논문을 활용하여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부패학회보는 부패학 연구 전문학술지로서의 정체성과 부패학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점은 부패학의 연구 경향과 내용을 한국부패학회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국제사회에서의 부패통제 또는 정책의 추세에 맞게 부패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점, 질적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여 부패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다소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차후의 연구에서 연구방법의 다양성 및 연구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 김진영. (2017). 부패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2(4): 81-99.
- 목진휴 · 박신애. (2002). 한국정책학보 10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11(1): 319-332.
- 박홍식. (2006). 학술연구발표(1956-2006)의 성향: 내용과 변화의 추이 『한국행정학오십년:1956-2006』, 한국행정학회.
- 주상현. (2002).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5.
- 조은성 · 김세나. (2007). “소비자학연구”에 발표된 논문들의 인용분석. 『소비자학연구』, 18(1): 71-94.
- 안혜원 · 류상일. (2007).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7(10): 183-190.
- 이병렬 · 박기관. (2002).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투고논문(1989-2001)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3-42.
- 이상원 · 이승철. (2007).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3): 197-228.
- 이승철. (2013).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 KCI 등재논문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한국경찰학회보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247-267.
- _____. (2014). 지방행정 분야의 연구 경향 분석- KCI 등재논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335-362.
- _____. (2020). 탐정학 연구 경향과 특징- KCI에 등재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치안 행정논집』, 17(4): 214-229.
- 우양호 · 홍미영. (2004). 지방정부연구의 실증적 분석(1997-2004)-행정학 분야 주요학술지와의 비교 연구-. 『지방정부연구』, 8(2): 75-103.
- 윤영진. (2013). 행정학 연구경향의 분석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990-2012) 게재논문의 총괄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1-29.
- 최상한. (2010). SSCI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행정학 연구자들의 논문경향: 최근 10년(2000-2009)간의 지적긴장과 지적편중.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43(3): 89-116.
- 최영출 · 김광구. (2011). 한국과 영국 행정학의 연구경향 비교분석. 『한국비교정부학회보』, 15(1): 123-139.
- 최호택 · 정석환. (2011). 한국지방자치 연구경향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등재논문(2002-2010년)의 연구주제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5-24.
- 한태천. (2000). 한국행정논집분석 -행정학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2(4): 781-802.
- Houston, David J., & Delevan, Sybil M. (2000).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 Assessment of Journal Public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6): 674-681.
- Lan, Zhiyong & Anders, Kathleen K. (2000). A Paradigmatic View of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 Empirical Test. *Administration & Society*, 32(2): 138-1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

<http://www.kci.go.kr/> 2021.02.21.검색.

투고일자 : 2021. 02. 28

수정일자 : 2021. 03. 26

게재일자 : 2021. 03. 31

<국문초록>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

- 한국부패학회보를 중심으로 -

이 승 철

본 연구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KCI에 3회 이상의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논문 11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하고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배경에서는 첫째, 성별에서 연구자 전체는 141명이었으며, 남성 126명(89.4%), 여성 15명(10.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자의 직위에서는 교수 85명(60.3%), 연구원 28명(19.9%), 기타 13명(9.2%), 강사/겸임 9명(6.4%), 박사 6명(4.2%)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 52편(47.3%), 영남권 31편(28.2%), 충청·강원권 23편(21.0%), 호남(제주)권 4편(3.5%) 순으로 나타나 부패학 연구자들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유형에서는 단독연구 83편(75.5%), 공동연구 27편(24.5%)으로 나타났다.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비지원에서는 순수연구 78편(70.9%), 연구비 지원연구 32편(29.1%)으로 순수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1인당 게재논문 횟수에서는 9·7·4회 1명, 5회 3명(10.6%), 3회 7명(14.9%), 2회 8명(11.3%), 1회 69명(48.9%)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속에 있어서는 기타 78명(55.3%), 행정학과 31명(22.0%), 법학 20명(14.2%), 경찰행정학과 12명(8.6%) 순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행정학과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방법에서 110편의 논문은 서술적 연구 87편(79.1%), 경험적 연구 23편(20.9%)로 나타나 서술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전공에서는 행정 60명(42.6%), 법학 35명(24.8%), 기타 23명(16.3%), 경제 11명(7.8%), 정책 8명(5.7%), 경찰 4명(2.8%) 순으로 나타나 행정과 법학 전공자들이 부패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배경에서는 첫째, 연구주제에서는 부패 52편(47.3%), 기타 25편(22.7%), 감사 7편(6.4%), 청렴 6편(5.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옴부즈만 5편(4.5%), 윤리 4편(3.7%), 부정청탁 3편(4.1%), 뇌물 3편(2.7%) 순으로 나타나 부패 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인용 횟수를 살펴보면, 21·16·15·14·10·9회가 각 1편(0.9%),

13회 2편(1.8%), 11회 3편(2.7%), 8회 5편(4.5%), 7회 8편(7.3%), 6회 4편(3.6%), 5회 10편(9.1%), 4회 26편(23.6%), 3회 46편(42.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약 5.1회의 피인용 횟수로 나타났다.

주제어: 부패, 한국부패학회보, 연구경향, KCI, 내용

